

백엔드 데브코스 4기 **New 1**차 피어리뷰 결과를 공유합니다

- 과정명: 프로그래머스 데브코스: 클라우드 기반 백엔드 엔지니어링
- 리뷰 기간 : 2023/6/19(월) ~ 2023/8/4(금)
- 1. 피어리뷰
- 2. 멘티리뷰

읽기 전 유의해주세요

- 모든 내용은 직접 제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.
- 일부 정성적인 내용은 더 나은 내용 전달을 위해 수정되었을 수 있습니다.
- 향후 데브코스 생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

읽고나서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.

- 그러나 누가 나서서 얘기해주지 못했던 나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.
-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진단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경험입니다.
- “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행동들이 동료들에게 이런 식으로 비춰졌구나”
- 타인의 의견을 품고, 수용하여 성장할 수 있는 **‘어른’**과 **‘프로’**가 되시길 바랍니다. 🙏

1. 멘티리뷰 결과

해당 기간에 느낀 개발 기술 역량				
탁월	우수	보통	미흡	곤란
	1	1		

해당 기간에 느낀 개발, 협업 스킬				
탁월	우수	보통	미흡	곤란
	1	1		

해당 기간에 느낀 문제 해결 능력				
탁월	우수	보통	미흡	곤란

	1	1		
--	---	---	--	--

해당 기간에 느낀 자기 주도 학습 태도				
탁월	우수	보통	미흡	곤란
	2			

리뷰 내용	
멘토 1	<p>예성님은 전반적으로 데브코스를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처음 코드 작성 하였을 때보다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</p> <p>다만!! 평소에 뭔가 고민이 많아보입니다. ㅎㅎ (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학습 관련해서 어느정도 깊이까지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?)</p> <p>데브코스는 코스대로 잘 진행해보시면 되고, 가급적 개발을 최대한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</p> <p>예성님이 고민하시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개발을 많이 해보시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.</p> <p>그리고 DM으로 질문주셨다고 제가 뭔가 나무란 것 같은데, 그냥 슬랙에 간단히 정리해서 질문 주시면 됩니다. ㅎㅎㅎ</p> <p>요즘 제가 바빠서 예성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잘 못챙겨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, 아마 이 리뷰 받는 이후로는 그래도 더 시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해커톤도 하고 ㅇㅈ?</p> <p>암튼 과제도 빠르게 내주시고 감사합니다.</p> <p>남은 기간도 화이팅 해봐요.</p>
멘토 2	<p>기본적인 학습 능력이 뛰어나시며 배움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주십니다.</p> <p>또한 피드백을 적절히 수용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계십니다.</p> <p>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기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기대됩니다.</p>

2. 피어리뷰 결과

해당 기간에 느낀 개발 기술 역량				
탁월	우수	보통	미흡	곤란
1	1	3		

해당 기간에 느낀 개발, 협업 스킬				
탁월	우수	보통	미흡	곤란
2	3			

해당 기간에 느낀 문제 해결 능력				
탁월	우수	보통	미흡	곤란
1	3	1		

해당 기간에 느낀 자기 주도 학습 태도				
탁월	우수	보통	미흡	곤란
3	2			

리뷰 내용	
<p>좋았던 점 칭찬할 점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해야할 일을 성실하게 해내시고 다른 팀원분들과 열심히 소통하려 노력하십니다. 같이 대화하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. 2. 배려도 많이 하시고, 질문도 자주 하시는 모습이 좋은 것 같다. 3. 어떤 이야기든 잘 들어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한 팀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잘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! 4. 팀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이 감명 깊었습니다! 5.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게 보일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어떻게든 채우시려는 점이 배울만 합니다. 코드리뷰에 본인이 참고한 링크를 남기는 등 성의있게 남겨주십니다
<p>생각해볼 점 (제안/개선)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예성님께서 팀원들에게 무언가 질문을 하셨을 때,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방향성에 대해 정확히 짚지 못한다면 가우뚱 하시며 "아 ~ 관련해서 찾아볼게요" 라고 보통 하시는데 한번씩은 집요하게? 물어보는 것도 팀원들끼리도 서로 좋을것 같습니다! 그러면 설명을 해준 팀원혹은 팀원들도 더욱 뿌듯함도 얻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! 2. 가끔은 고민을 조금 줄이고 빠르게 질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어떤 점을 질문하시려다가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망설이고 한 문제에 꽤 오래 투자하는 경우가 가끔 보여서 그렇게 느꼈습니다
<p>고마운 점 감사한 점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본인이 학습하면서 블로그등을 통해 얻은 좋은 인사이트들을 항상 공유해주시합니다. 그래서 나도 알고 있었더라도 한 번 더 보게 되어 학습의 능률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

	2. 제가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에 대해 질문했을 때 본인일처럼 함께 고민해주셨습니다
--	---

(문서 끝)